

“올 목표는 건강관리”...유통가, ‘새해 결심상품’ 인기

이마트, 건강기능식품 77.9% 신장 GS25, 1월 식단관리 메뉴 1+1판매 하이마트, 새학기 인기 IT가전 할인 쿠팡, 8일까지 새해 결심 특가 행사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 다이어트, 학업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신년 계획을 세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새해 결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가는 다채로운 새해 결심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발길 붙들기에 나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이마트는 신년을 맞아 건강 관리를 목표로 하는 고객이 늘면서 새해 인기 상품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신장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새해 결심 상품 관련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건강기능식품이 77.9% 신장했다. 다만 닭가슴살 -2.4%, 다이어리 -0.5% 등은 역신장했다. 홈플러스도 전국 기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건강식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4% 증가했으며, 그중 다이어트 식품은 약 98% 증가했다. 문구류는 전년과 비교해 보합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기준 건강식품 매출은 직전 달 동기(2024년 11월22일~12월8일) 대비 약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 다이어트, 취업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신년 계획을 세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새해 결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광주 동구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 신년 다이어리가 진열돼 있는 모습.

160% 증가했으며, 그중 다이어트 식품은 약 47% 증가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새해 결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GS25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표적인 식단관리 상품 매출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단백질바 매출은 직전 동기간 대비 32.2% 늘었으며 샐러드 16.1%, 구운란 14.2%, 닭가슴살 13.7%, 단백질 음료 10.9% 등의 매출도

상승세를 보였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 연령대로는 20대가 33.4%, 30대가 38.5%를 차지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새해 수요가 높아지는 상품을 선별해 ‘결심 상품 기획전’을 준비하는 등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먼저 GS25는 이달 한 달간 건강 관리 프로젝트 ‘결심’ 행사를 통해 닭가슴살과 구운란, 냉장간편식 등 식단관리 메뉴 26종과 하루엔진마그부스터샷, 에너지활기

력샷 등 건강 관련 식품 10종을 1+1(원플러스원)으로 판매한다. 이외에도 새해 결심 중 하나인 학업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노트북, 태블릿 등 IT 가전 행사도 진행된다. IT 가전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높아지는데 롯데하이마트의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매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1~2월 IT 가전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연초 구매 고객이 많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롯데하이마트 하이라이트 빅 세일’을 진행한다. 전국 320여개 매장에서 학업·취업 등의 신년 목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인 노트북, 태블릿 등 IT가전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인기 IT 가전을 선정해 최근 1년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삼성전자 노트북 중 지난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삼성전자 ‘갤럭시 북4(256GB)’를 500대 한정으로 79만원대에 판매한다. 또 로지텍 무선 마우스 중 지난해 가장 많이 판매된 ‘로지텍 M190’을 3000대 한정으로 9000원대에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노트북 행사 상품 구매 시 로지텍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IT 가전 행사 상품을 특가에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고3(256GB)’를 109만원대에,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256GB)’를 117만원대에, 레노버 ‘P12(128GB)’를 31만원대에, LG전자 ‘울트라기어 모니터’를 33만원대에, 로지텍 헤드셋 ‘G335’를 6만원대에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신년 상품’ 기획전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쿠팡은 8일까지 ‘새해 결심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상품을 최대 50% 할인에 선보인다. 건강관리 △자기 관리 △여행 △공부·취미를 테마로 스포츠용품, 건강기능식품, 뷰티용품, 캠핑용품 등부터 떡국, 만두 등 새해 음식과 다이어리, 달력 등 새해 준비 용품까지 다채롭게 마련했다. 롯데온도 설 명절 선물로 ‘결심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인기 상품으로 매콤 데리야끼맛, 스위트갈릭맛, 떡볶이 맛 등 다양한 소스가 포함된 닭가슴살을 종류별로 담은 ‘햇살닭 닭가슴살 선물세트(5만원대)’, 온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종근당 락토핏 골드 유산균 선물세트(3만원대)’,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이온샷 선물세트(5만원대)’ 등이 있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7일까지 ‘따뜻한 큐레이션’을 키워드로 2025년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 설 선물세트 본 판매 진행

27일까지, 맞춤형 상품제한 ‘심혈’ 구매금액별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27일까지 ‘따뜻한 큐레이션’을 키워드로 2025년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올해 설 사전예약(12월20일~1월5일)부터 ‘따뜻한 큐레이션’을 키워드로 삼고, 맞춤형 상품 제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축산 및 청과, 수산 등 신선식품을 받고 선물할 수 있도록 우수 산지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축산세트는 ‘함평전지한우 명가세트(75만원)’, ‘함평전지한우 정성3호세트(50만원)’, ‘고창한우 감사1호 세트

(53만원)’, ‘고창한우 감사2호 세트(39만원)’가 준비돼 있다. 수산세트로는 ‘영광법성포갈비 건 산세트(90만원)’, ‘흑산도 홍어 GIFT(시세기준)’를 만나볼 수 있고, 농산세트는 나주의 명물 ‘나주배 세트(18만원)’, ‘장흥 백화고 명품세트(30만원)’ 등이 있다. 광주점에 입점해 있는 명인이 만든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 32호 강봉석명인이 만든 ‘도라지 청 1호(15만원대)’, 90년 전통의 젓갈 명가 수산식품명인 제 5호 김정배 명인이 만든 ‘명인 젓갈 프리미엄(12만원대)’, 옛 조선왕실의 장맛을 담고 있는 식품명인 제 37호 권기옥 명인의 ‘상촌전통장 해(9만

원대)’를 대표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지역 대표 베이커리인 베비에르에서는 ‘쿠키세트(3만원대)’, ‘마왕파이(3만원)’, ‘보향떡집은 ‘떡국떡+인기떡 세트(2만3000원)’를 준비했다. 본 판매 기간(1월6~27일)에는 상품에 따라 구매 금액의 최대 5~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롯데백화점물에서도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식품 선물 세트는 구매 금액에 따라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선착순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8%를 엘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부모님, 조가 등 선물 받는 대상에 따라 맞춤형 선물을 추천해 주며, 일부 한우 및 화장품 세트는 오전 11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오늘도착’ 서비스도 진행한다. 나다운 기자

중진공, 올해 ‘구조혁신지원사업’ 추진

13일부터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사업 분야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올해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참여기업은 구조혁신 대응 수준과 사업 전환 타당성을 진단받고,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중진공을 통한 사업전환계획 승인 시 사업전환자금, 연구개발(R&D),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등의 후속 연계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3일부터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3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1%대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 중진공이 구조혁신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찾아가,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오영주 장관, 특별재난지역 무안 상권 점검

7일 무안전통시장 방문, 애로 청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을 방문해 지역 전통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은 이날 무안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해 상인들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또 오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어려

움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안전통시장은 매일 4, 9일 5일장이 열리고 30여개 점포는 상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중기부 주관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전남대표시장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오 장관은 시장 내 점포들을 방문 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구매하며 물가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후 직원들과 함께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조문했다. 박소영 기자